

1/10/21

설교 제목: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여호수아 24 장 1-28 절

- (수 24:1)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겔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 (수 24:2)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훔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절관주** 창 31:53
- (수 24:3)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 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 (수 24:4)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 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절관주** 창 36:8
- (수 24:5)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 (수 24:6)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절관주** 출 14:9
- (수 24:7)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절관주** 수 5:6
- (수 24:8)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 (수 24:9) 또한 모압 왕 십불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브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 (수 24:10)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절관주** 잠 16:7

- (수 24:11)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며
- (수 24:12)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절관주** 시 44:3
- (수 24:13)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절관주** 신 6:11
- (수 24:14)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 (수 24:15)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절관주** 사 6:10
- (수 24:16)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 (수 24:17)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 (수 24:18)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 (수 24:19)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 (수 24:20)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 (수 24:21)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 (수 24:22)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 (수 24:23)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 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 (수 24:24)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 (수 24:25) 그 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 (수 24:26)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 (수 24:27)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 (수 24:28)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모두 세겜에 불러 모으고 그들 앞에서 한 두 번째 고별사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불러 첫 번째 고별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고별사에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기록한 모든 율법을 크게 힘써 지켜 행하라고 간곡히 당부하며 그 길만이 이스라엘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까지 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모두를 세겜에 불러 모아 놓고 두 번째 고별사를 합니다.

(수 24:1)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세겜은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75 세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같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 도착했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창 12:5)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창 12:6)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 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창 12:7)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은 처음 가나안 땅을 밟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곳 세겜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세겜은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주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20 년만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을때 형 에서가 자신이 살고 있는 세일로 가자고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 에서의 제안을 거절하고 숙곳에서 얼마간 머물다가 이곳 세겜에 땅을 사서 정착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엘로 곧장 갔어야 했지만 세겜이 초원 지대인지라 가축을 기르기 좋은 여건이 구비되어 있어 하나님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이곳에 정착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누이의 강간 소식을 전해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하여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세겜의 아녀자들과 그들의 재산들을 빼앗아 왔으며 그 일로 말미암아 야곱은 더 이상 세겜에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야곱은 결국 하나님과 약속한 베엘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세겜은 이스라엘에게 영욕의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브라함 시대, 출애굽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순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합니다.

먼저 아브라함 시대 곧 이스라엘의 태동부터 선민이 되어 번성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수 24:2)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훔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수 24:3)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 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수 24:4)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 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하던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 곧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어 선민으로 택하시고 번성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우리가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요 15:16)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다음 출애굽 시대 곧 출애굽부터 홍해를 건너 광야에 거주하기까지 말합니다.

(수 24:5)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수 24:6)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수 24:7)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400 여년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고 애굽에 10 가지 재앙을 내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 밖에 없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후 마음이 바뀌어 군대를 풀어 뒤쫓게 하자 홍해를 앞에 두고 사면초가에 몰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홍해를 갈라 저들로 하여금 무사히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다 건넌 후 다시 덮으셔서 뒤쫓아 오던 애굽 군사들을 몰살시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40 년 동안 만나로 먹여 주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시대를 말합니다.

(수 24:8)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수 24:9) 또한 모압 왕 십불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브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수 24:10)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수 24:11)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헛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며

(수 24:12)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수 24:13)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심으로 성취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에 거주하게 하셨으며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합니다.

(수 24:14)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조상들이 강 저쪽 하란에서 섬기던 신들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하나님과 함께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방 신들을 치워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호소합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당장 하나님과 이방 신 중 택일을 하라고 촉구하면서 단호히 자신과 자신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합니다

(수 24:15)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신앙은 끊임없는 선택을 요구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도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고 답합니다.

(수 24:16)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수 24:17)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수 24:18)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섬기겠다는 결단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수 24:19)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수 24:20)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수 24:21)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저들에게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똑바로 섬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적당히 대충 섬겨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차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확인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향해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한 말에 스스로 증인이 되었으니 행하여 이방 신들을 치워 버리고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합니다.

(수 24:22)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수 24:23)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 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수 24:24)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다짐을 받고 또 받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날에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체결하고 율법을 제정합니다.

(수 24:25) 그 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수 24:26)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와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수 24:27)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수 24:28)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여호수아는 영욕이 얼룩진 땅 세겜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과 세상 중 선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 싸우셔서 원수가 쫓겨나게 될 것이고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얻어 거기에 거주하게 될 것이며 또 저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반면 세상을 선택하면 이미 복을 내리셨을지라도 그 복을 거두고 재앙을 내리셔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선택은 저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세겜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세상 중 선택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선택하면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장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상관없이 저와 제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